

국외출장계획서

구 분	내 역								
출장자	소속	항만연구본부	성명	이수영	직급	전문연구원	보안교육	O	
				이다예		전문연구원	수강여부	X	
출장목적 (중복선택 가능)	☐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☐ 국제행사 주최 ☐ 국제행사 참가 ☒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☐ 세미나, 교육, 훈련 ☐ 기타 () - 아세안 해상교통실무회의(ASEAN MTWG) 한국 대표단 참석								
관련사업 (예산항목)	- 「2025년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」(수탁) (기간 : 25.05.30. ~ 26.05.29.)								
출장기간	이수영: 26.4.6(월)~8(수) (1박 3일) 이다예: 26.4.6(월)~9(목) (2박 4일)			출장지		캄보디아 프놈펜			
출장일정	일자	방문지			주요업무*		비고		
	04.06(월)	부산(16:30)→인천(17:20) 인천(18:50)→프놈펜(22:15)			항공 이동 (이수영, 이다예)		KE1410 KE689		
	04.07(화)	오전	ASEAN MWTG			참석(개회)			
		오후	ASEAN MWTG			참석 및 발표 (Agenda 6.1.2)			
	04.07(화) 04.08(수)	프놈펜(23:35)→인천(+1, 07:40) 인천(08:20)→부산(09:30)			항공 이동 (이수영)		KE690 KE1403		
	04.08(수)	오전	ASEAN MWTG			참석 및 발표 (Agenda 10.5)			
		오후	ASEAN MWTG			참석(폐회)			
	04.08(수) 04.09(목)	프놈펜(23:35)→인천(+1,07:40)			항공 이동 (이다예)		KE690		
출장성과	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 - 아세안 지역 해운·항만 개발 현황 및 중장기 정책 방향 파악 - 주요 협력국(중국, 일본, 미국 등) 및 국제기구, 지역기구의 對아세안 협력사업 조사 ○ 주요 성과 - 한-아세안 해상교통 부문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발표 수행 - 한-아세안 해상교통 부문 신규 협력사업 수요 조사 수행								
향후계획	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 - 정부 부처(해양수산부, 국토교통부) 및 본 과제 연구진과 출장 성과를 공유하고, 후속 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 방안 검토 예정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 - 한-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 이행 지원								
참고 등 특이사항 (건의사항)	-								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√), 결과())

업무유형	☐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☐ 국제행사 주최 ☐ 국제행사 참가 ☒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☐ 세미나, 교육, 훈련 ☐ 기타 ()
업무①	4.7.(화) ASEAN MTWG 참석(1일차)
수행계획	□ (09:00-17:00) ASEAN MTWG 1일차 - 참 석 자 : 이수영 전문연구원(발표, 협의), 이다예 전문연구원(서기, 협의), 해양수산부, 한국항만협회, ASEAN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 등 약 50인 - 주 요 내 용 · 아세안 해운·항만 이슈 및 국가별 해운·항만 개발 계획 파악 · 한국 대표단 발표 1건 수행 및 의견 수렴 * Agenda 6.1.2 아세안 해상 무역 패턴 분석 연구(발표자: 이수영 전문연구원)
수행결과	□ 아세안 해상교통 협력 및 ASSM(ASEAN Single Shipping Market) 추진 논의 ○ ASSM 연구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논의 - MIMA는 ASSM 구축을 위한 역내 해운·물류 효율화 및 시장 통합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안 - 단기 정책으로는 IMO FAL Convention과 국가 정책 간 조화 추진, MSW 기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, 회원국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, 스마트항만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 추진 등이 논의 - 중장기 정책으로는 데이터 표준 및 e-Certificate 등 지역 차원의 조화 추진, ASSM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, 국가 및 ASEAN 차원 플랫폼 연계를 통한 항만 디지털 통합 등이 제안 ○ 싱가포르는 국제적 규범과 국가별 정책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'ASEAN Green % Digital Community' 구성을 제안 -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아세안 해상교통의 친환경·디지털 전환을 연계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 - 스마트항만, 디지털 물류, 탈탄소 정책 연계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 ○ 아세안 사무국은 ASSM 추진의 한계와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 - 그동안 ASSM 정책은 제도적·기술적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 시장 통합 및 역내 무역 효율화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 -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회원국 간 데이터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끊임없는(seamless) 무역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 □ 아세안 네트워크 항만 KPI 운영 현황 및 디지털화 추진 논의 ○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에 포함됨에 따라 아세안 네트워크 항만에 동티모르 2개 항만(Dili, Timor)이 추가 ○ 국가별 항만 KPI 관리체계 및 운영 성과 공유 - 아세안 회원국은 품목별 물동량, 선석·야드 활용률, 선박 입출항, 선박 턴어라운드 및 대기 시간, 트럭 게이트 대기 및 턴어라운드 시간, 안전사고 발생 수 등을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 중 ○ 주요 항만 자동화·스마트화 성과 및 추진 계획 공유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√), 결과())

	- 인도네시아는 실시간 분석, AI 기반 예측, 지속 모니터링 가능한 KPI 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계획을 공유 - 캄보디아는 Sihanoukville 항만 자동화 이후 장치장 체류시간 감소 등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소개하고, 항만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PCS-TOS 고도화와 친환경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 ○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협력 논의 - 캄보디아는 일본 JICA 차관 기반 신규 컨테이너 항만 개발 및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개발 계획을 공유 - 태국은 람차방항의 도로 의존적인 물류 체계를 복합물류와 연계한 최적화 추진 계획과 방콕항의 물류센터 구축 및 터미널3 반자동화 터미널 구축 계획을 공유 □ 아세안 해상 무역 패턴 분석 연구 발표(AGENDA 6.1.2 / 이수영 전문연구원) ○ 아세안 역내 해상무역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.1% 증가하여 2023년 기준 5.5억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, 그러나 일부 항만은 과포화되는 가운데 일부는 활용도가 저하되면서 역내 불균형 및 물류 비효율 발생 ○ 아세안 역내 컨테이너 무역 구조를 분석하여 수급 격차를 진단하고, 아세안 역내 효율적인 컨테이너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-2030년 5개년 연구 수행 - 1단계(26-27): 아세안 국가별,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, 역내 컨테이너 무역 네트워크를 분석 - 2단계(28-29): 국가별, 항만별 물동량 전망 및 하역능력 조사를 바탕으로 수급 분석 - 3단계(30):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도출, 아세안 회원국 의견 수렴 ○ 향후 분석 수행을 위한 회원국별 자료 제공을 요청
업무②	4.8.(수) ASEAN MTWG 참석(2일차)
수행계획	□ (09:00-17:00) ASEAN MTWG 2일차 - 참 석 자 : 이다예 전문연구원(발표, 서기, 협의), 해양수산부, 한국항만협회, ASEAN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 등 약 50인 - 주요 내용 · 주요 협력국(미국, 일본 등)의 對아세안 협력 추진 현황 · 한국 대표단 발표 1건 수행 및 의견 수렴 * Agenda 10.5 한-아세안 해상교통협력 로드맵 이행 현황 및 계획(발표자: 이다예 전문연구원)
수행결과	□ 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-2030(해상교통 부문) 이행 발표(AGENDA 10.5 / 이다예 전문연구원) ○ ‘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(2026-2030)’ 해상교통 부문 이행 현황 공유 - 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(2026-2030)은 도로, 항공, 해상 분야의 교통인프라,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, 지속가능 및 친환경 교통, 안전 및 포용성, 역내 연결성 강화 및 원활화, 역량강화 및 정책 개선의 6대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 - 해상교통 분야에서 한국-아세안 간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해상교통 부문 로드맵 이행 현황을 공유 - 한국은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베트남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, 선박 온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√), 결과())

실가스 감축 대응 전략 수립, 내륙수로 항행 시스템 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

- 그 외 한-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의 신규 협력사업 수요 제출을 요청

□ 주요 협력국의 對아세안 해상교통 협력 현황 파악

- 중국은 여객선 안전 및 디지털 통관 분야 협력을 추진
 - 중국-아세안 여객선 협력 사업 현장 방문 및 안전·친환경 여객선 활용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
 - 스마트 여객선 터미널 구축, 표준화된 여객선 보급, 여객선 안전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
 - 그 외 선박의 신속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통관(e-Certificate) 시스템 협력 논의
- 일본은 항만보안, VTS, 탄소중립, 녹색선박 등 중장기 협력사업을 추진 중
 - VTS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대상 교육·훈련 및 이행계획 수립 지원
 - 항만보안 촉진과 사이버보안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
 - 아세안 탄소중립 항만 가이드라인 마련, OPS-저탄소장비·친환경 연료 적용 협력 확대
 - 녹색선박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·로드맵·금융지원 개발 추진
 - 아세안-일본 크루즈 프로그램 및 교통정책 관계관 연수 지속
- 그 외 노르웨이, 미국, 프랑스, 노르웨이, 호주 등의 협력국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
 - 노르웨이는 선박 통항 정보, 탄소 배출량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아세안 녹색해운회랑 평가 사업을 추진
 - 미국은 아세안 항만 회복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항만 터미널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논의, 또한 항만 보안관련 워크숍에서 항만의 위험요인 식별과 대응 방법, 보안 프레임워크를 논의
 - 프랑스는 아세안 선박 폐기물 관리 전략 개발, 그린 포트 인덱스 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, AI·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 개발 협력을 제안
 - 호주는 향후 개최 예정인 아세안 미래해양 컨퍼런스 정보를 공유하고,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P4I(Partnership 4 Infrastructure)의 아세안 협력사업 주제를 소개
 - 이 외에도 IMO, FASA, APA 등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도 아세안 해상교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

참고 1

회의 참석 사진

